

하나됨과 나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또다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경건한 가정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어린이주일과 청소년주일을 함께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배를 준비한 어린이사랑방과 푸른꿈사랑방을 격려해 주십시오.
- 다음 주일은 5월의 둘째 주일, 어버이주일로 지킵니다.

제 42 - 18 호

2025년 5월 4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이용신 장로 · 진정행 권사 가정 (감사)
나송주 집사 · 이윤희 권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화진심 학생 (생일 감사)

신협(한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어린이가 가진 힘

‘어린이’라는 말은 ‘나이가 적다’라는 뜻의 ‘어린’와 의존명사 ‘이’가 결합한 낱말로 1920년에 소파 방정환이 어린 아동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어린이를 규정할 때 만 12세 미만 혹은 만 18세 미만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유한 말의 늙은이, 높은이, 착한이라고 하는 낱말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라는 글자는 ‘높은 사람’이라는 Met을 가지고 있는 ‘~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81년 이희승이 엮은 『국어대사전』에는 “어린이란 어린아이를 높여 부르는 말로서 나이가 어린 아이란 뜻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방정환은 1923년 우리나라 첫 아동잡지인 《어린이》를 창간하면서 보급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17세기 문헌인 《경민편》에서 “어리니”라는 낱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널리 쓰이기 전에는 애놈, 아들놈, 딸년 등으로 불리고 현재 의미가 순화되어 방언인 아들내미, 딸내미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어린이 사람”이란 뜻으로 쓰여졌었는데 ‘이라는 말에 존중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강조한 것에 의미가 더 있다고 봅니다. 어린이가 지금처럼 존중의 대상으로, 독립된 인격체로 여겨지기 시작한 건 근대의 일인데, 이 ‘어린이’란 낱말부터가 그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변화되기 전에는 어린이는 단순히 어른에 종속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요즘에도 자기 아이를 소유물로 인식하는 부모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인식으로 자기 ‘종속품’정도로 생각하여 어린이를 하대하거나 억압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나무위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어린이]

명절이나 가족들이 많이 모일 때면 어린 아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있으면 분위기가
선교와 섬김

한결 부드러워지고 웃음을 주게 합니다. 그것은 어린이들에게 가품을 설명하고 그 뜻을 알려주기도 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어렸을 때의 모습과 닮았기에 과거를 보아온 친지들이 과거에 대한 공감대와 회상을 가지게 합니다.

어린이들은 순수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살이를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따라 합니다. 기본적인 것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장난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들이 순수하여 당황한 반응으로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은 솔직합니다. 자기가 본 것, 들은 것을 잘 드러냅니다. 가족에게 있었던 일도 쉽게 이야기하고 본 대로, 느낀 대로 이야기합니다. 좋고 싫어하는 것도 솔직하게 드러내며 기분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잘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의 글을 보면 우리를 웃음짓게 하는 것도 순수함과 솔직함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시절에는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을 그대로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경험은 기억과 마음에 남아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꾸준한 영향을 줍니다.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 존중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결정하게 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반면 모든 것을 다 어른이 다 계획해주고 따르게 하기도 합니다. 자라나는 세대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어려움을 제거해주면 성공과 실패가 있을 때 원인을 찾고 해법을 찾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순수함과 솔직함이 삶의 좋은 원동력으로 살 수 있도록 잘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최기찬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 애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
<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태일 목사

찬송 : 449, 218 / 327

기도 :

성경 : 출애굽기 38장

제목 : 번제단과 성막 울타리를 만들다

1. 번제단과 성막 울타리를 만들다 (What)

- 1) 번제단을 만들다<1-7> 5자×5자×3자 * 약1.53평
- 2) 물두멍을 만들다<8> 대제사장-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세정대
- 3) 성막 울타리를 만들다<9-20> 100자×50자×5자 * 약306.3평
- 4) 성막 공사 명세서<21-31> 금, 은, 놋(구리) * 총 975억원

2. 하나님의 일은 구별된 방법으로 해야 한다 (Why)

- 1) 시설의 규격 소개 : 하나님의 지시대로 작업하였다.<36:1>
- 2) 재료의 양을 밝힘 : 최선의 힘을 모아서 작업하였다.<36:5-7>
- 3) 지출 명세서 작성 : 재정(헌물사용)을 투명하게 하였다.<38:21>

3. 하나님의 일은 구별된 방법으로 해야 한다 (Why)

- 1) 시설의 규격 소개 : 하나님의 지시대로 작업하였다.<36:1>
- 2) 재료의 양을 밝힘 : 최선의 힘을 모아서 작업하였다.<36:5-7>
- 3) 지출 명세서 작성 : 재정(헌물사용)을 투명하게 하였다.<38:21>

어린이&푸른꿈의 최고로 애정하는 성경 말씀

화 진 심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 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마 22:37
최 시 현	내 이름(다할 진, 마음 심)의 뜻이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 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전 12:13 세상의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
진 나 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엡2:10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도 잊지 않으며 그 몫에 마땅한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해 주었다.
최 진 용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네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시 121:5 내가 겁이 많은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좋다.
최 민 용	'회오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처럼 꿈쩍하지 않는다.' 나는 악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예배도 잘가고 설교도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김 예 흠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 4:4 예수님을 동경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한다.
화 진 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 3:16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와닿는다.
정 아 영	'자녀 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요일3:18 나는 그냥 사랑한다고 할 때가 자주 있어 약간 찢린다는 생각이 든다.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구절이다.
이 홍 인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빌 1:29 어릴 때 외웠는데 다시 보니 좋다.
김 보 경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매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 댄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이사야 58:11 주님께서 나를 늘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물 댄 동산처럼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신다는 뜻이 너무 좋다.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잠언서 3 : 1-8

32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로마서 8 : 1-2

565, 570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대표기도)

최진웅 어린이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누가복음 2 : 41 - 52

설교자

성가대 찬양

예수 닮기 원해(54) 어린이·푸른꿈사랑방

설교

“사춘기,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정태일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응답의 찬송

*봉헌기도

*영광찬송

*위탁의 말씀

*강복기도

560

410(3)

설교자
다함께
진나우 학생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김예훈 정아영 화진지 / 봉헌위원 : 최시현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배

공동기도문

이 땅에 가정과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사춘기,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예수님, 12살에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시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는 해에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 유월절 절기에 참석하셨
다.<41-42> 일행이 절기를 마치고 귀가할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
루살렘에 머물러 계셨다.<43-45> 가족들은 사흘 뒤에야 예루살렘
에 돌아와 성전에서 선생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찾았다<46-52>

성장기의 신앙적 경험은 중요하다. 예수님은 잘못을 꾸짖
는 부모에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
습니까?” 하고 말씀하셨다.<49>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면서 메시아
로서 자신의 소명을 깨달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처음
유월절 제사 의무에 참여하는 12살이 되는 해였습니다.

사춘기,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인격을 형성하고, 나아가 자신이 경험한 대로 살아갑니
다. 따라서 인격을 형성하는 사춘기의 경험은 인격형성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춘기에는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태일 목사 / 기도 : 임은숙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베개의 날은 새내기 꾸러기들이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한 밤을 보내는 날입니다. 월요일 낮에 전시회도 보고 아쿠아리움에 갔다가 학교에 왔습니다. 자연예배당에서 놀다가 공동주택으로 옮겼습니다. 저녁을 먹고 낮에 본 물고기들도 그리고 책도 보고 종이컵이랑 인형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모두들 늦게까지 놀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다고 말은 했지만 친구 옆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잘 안 오는지 뒤척이던 꾸러기도 선생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화요일에는 귀락마일로 산책을 다녀오고 동그라미에서 영상을 보았습니다. 내내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았습니다. 앞으로 여행도 잘 다닐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잔치를 했습니다. 한껏 멋을 부리고 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장애품을 통과하는 놀이를 한참 했습니다. 땀이 날 정도로 열심의 놀았습니다. 나집사님께서 경운기도 태워주셨고 비눗방울놀이도 했습니다. 보물찾기를 하고 선생님들이 몸으로 주는 선물도 받았습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파란하늘 파란하늘 꿈이 드러운 푸른 언덕에 ~

쉬는 시간이면 모여서 캠프 조모임을 하고~ 책 엄마가 오시면 거기도 가야하고~ 부서별 모임도 해야 하고~ 숙제 해오지 않아 운동장을 열심히(?) 돌기도 하고~ ㅎㅎ ~

그 중 가장 바쁜 날은 금요일이었는데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고 • 고대하고 • 행복한 날 !! 멋 부리는 날입니다. 포크로 빗질하며 멋부린 인어공주, 태권동자, 배드민턴 안세영, 치어리더, 빨강망토차차, 세일러문, 귀멸의칼날 네즈코, 게임코스프레 중 세이드와 핑크스 등~ 정말 같은 복장 없이 다 다르게 입고 멋을 부려서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선물로 구렁이 담넘어권, 트램펄린 최초이용권, 다이소

배움과 가르침

이용권, 구슬아이스크림권, 에버랜드 용돈 지원금 등~ 뽑기를 했는데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시시한 친구도 있었지만 웃음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LTSS 마지막 시간에는 떡 인절미를 해서 나눠 먹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엉망이어서 먹을 수나 있나 했는데 콩고물을 묻혀 먹으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 행복한 한 주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행복 가득한 나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도보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은 언제나 가벼운 들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공용 짐을 모둠별로 분배하고 가방을 다시 싸는 것부터 여행은 이미 시작입니다. 텐트나 코펠, 온갖 식량과 간식 등을 안 그래도 뽁뽁한 가방에 우겨넣고 나면 한층 도보여행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첫날에는 철원의 주상절리길부터 시작했습니다. 계곡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길은 쾌청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아름다운 화적연을 떠나 산정호수를 통해 산을 넘어가는 코스였습니다. 길고 힘들었지만, 목사님께서 지원해주시고 또한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숙소는 바로 옆에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서, 많이들 발을 담가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더구나 동문들이 맛있는 음식을 들고 찾아와 더욱 고맙고 즐거운 저녁시간이 되었답니다. 셋째 날에는 피로도가 가장 높아지는 때였습니다. 숙소에 도착하는 그 순간이 어찌나 반가운지! 잘 때까지도 많은 멋쟁이들이 물집의 고통을 덜어내려 애썼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비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초래된 많은 불편함이 있었지만, 멋쟁이들은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고 노래를 부르는 등, 끝까지 멋진 모습으로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만드신 풍성한 저녁식탁에 앉으니, 엉거주춤한 걸음걸이에도 불구하고 다들 행복해보입니다. 멋쟁이들이 강한 의지를 발휘하고, 선배들의 활약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강하게 체감되는 여행이었습니다. 왜 이런 힘든 여행을 가는지, 그 의미를 잘 발견하고 간직하는 멋쟁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어린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정에서 기념해야 할 날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는 그 첫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린이날이란 요즘의 아이들처럼 선물을 받고, 추억을 만드는 그런 날이 아니고 단지 학교를 가지 않고 쉬는 날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이 거의 없었는데 딱 한 번 기억에 남는 어린이날은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인가의 어린이날입니다. 원래 어린아이들만을 데리고 어디를 가시는 분이 아니시던 아버지께서 저와 동생을 데리고 집 근처에 있던 창경원(지금의 창경궁)으로 나들이를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놀이기구도 태워주시고 동물들도 구경했습니다. 지금 보면 특별할 것이 없겠지만 그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처음 보는 고궁과 많은 놀이기구들이 있었고, 그림으로만 볼 수 있었던 동물들을 구경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어린이날을 기념해 나들이를 나와 봄비는 탓에 놀이기구를 많이 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기에 저의 최고의 어린이날로 기억됩니다.

어린이날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신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사랑방은 사랑방공동체의 미래입니다. 그런 어린이사랑방이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서도 잊지 않을 수 있는 사랑방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어린이사랑방은 푸른꿈사랑방으로의 진급과 권재만 목사님 가정의 해외 이주로 인하여 아주 소수의 인원만이 남았습니다. 어린이사랑방에 친구들이 충원되어 즐거이 지낼 수 있도록 어린이사랑방과 지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과한 관심은 배제하여 주시고 조용한 기도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루터기사랑방 이승호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다운 전도사

찬 송 : 210장, 208장

성 경 : 히브리서 10장 23절~25절

말 씬 :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위해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을 위해>
세계가 군사분쟁과 경제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군사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상황을 UN과 주변국가에서 중재중에 있습니다. 분쟁이 그치고 화해의 길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사랑방공동체는 교회의 갱신과 개혁의 소명을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세계도 대한민국도 혼란스러운 이때에 한국 교회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오직 말씀 안에 바로 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1) 공동체에 몸이 아픈 지체들, 회복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 도보여행 중에 있는 멧쟁이학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공동체 마당에는 꽃들이 만개하여 봄기운을 가득 느낄 수 있습니다. 나무들도 연두빛을 자랑하며 잎사귀를 풍성히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봄을 만끽하는 요즘이 참 감사합니다.

밭에도 감자와 콩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곧 여러 작물들로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5월 가정을 달을 맞아 우리 사랑방 모든 식구들의 마음에도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나기를 바랍니다.

< 장영미 전도사 >